

전북경제, 생산·투자·고용 ‘삼중고’

민간 소비·물가 완만한 회복 조짐

전북지역 경제가 얼어붙음에도 활기를 되찾지 못한 채 침체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여전히 부진하고, 수출과 투자 역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 시장마저 흔들리며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형국이다. 반면 민간 소비와 물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희미한 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북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감소했다.

5월(-4.2%)에 이어 두 달 연속 비슷한 폭의 감소세다. 특히 화학제품(-11.1%), 비금속광물(-9.7%), 음료(-33.7%) 등 주요 업종에서 나뉘어 커지며 산업 현장의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무려 19.3% 늘어나 기업들의 재고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고는 156.4%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활력이 부족하다. 대형소매점 판매가 6월 들어 6.4% 줄었지만, 감소 폭은 5월(-8.7%)보다는 축소되며 소비심리의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5.9% 늘어나며 반짝 반등했는데, 이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자금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여전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건축 착공면적이 34.2% 줄고, 건축 허가면적도 44.2% 급감했다. 미분양 주택은 2,976호로 전월보다 148호 감소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기계류 수입액이 24.6% 줄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음을 보여준다.

설비투자실행 BSI는 91로 전월(90)보다 소폭 올랐지만, 기준치 100을 밑돌아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비관적임을 방증한다.

수출입 부분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6월 수출액은 5억4천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1% 줄었다.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이 뼈아프다. 수입액도 1.3% 감소해 전체 무역 규모가 위축됐지만, 다행히 수출이 수입을 웃돌며 0.8억 달러의 소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흑자라 하더라도 수출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지역경제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

고용시장은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6월 전북의 취업자 수는 99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

다 1만1천 명 줄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며 지역 노동시장의 허리가 휘고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제조업에서 소폭 늘었지만, 감소 폭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용률은 64.3%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2%로 소폭 개선됐지만 이는 취업 의욕 상실에 따른 구직 포기 현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물가와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2.0% 올라 전달(2.2%)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농축산물 가격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매매가격은 0.1% 오르며 소폭 상승했지만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전주 지역은 꾸준한 수요로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익산과 군산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이 제64주년 농협 창립기념식을 맞아, 농업·농촌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결의대회를 10일 개최했다.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결의대회

전북농협, 농업·농촌 가치 확산 앞장

전북농협이 제64주년 농협 창립 기념식을 맞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농업·농촌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결의대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정환 총괄본부장, 김성훈 은행본부장,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 농축협 조합장과 계열사 대표 등 범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함께해 결의를 다졌다.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뜻을 담은 농심천심운동은, 농업인들의 마음과 노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곧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농업 가치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장이 됐다.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우리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농심천심운동에 전심을 다할 것”이라며, “농도인 전북에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농업 소득 증대, 농촌 활력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군산 대야·진안 마령,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전 우수작 선정

농산어촌의 공간이 단순한 생활터전을 넘어 사람과 지역을 잇는 매력적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025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전’에서 군산 대야면의 ‘추억트랙’과 진안 마령면의 ‘마령활력센터’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담은 공간 디자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에서 총 10개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전북본부에서 2개 작품이 동시에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군산 대야면의 ‘추억트랙’은 근대 주조장의 외형과 색채를 살려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과거 산업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현재 지역 상권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활용되며, 역사적 기억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디자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진안 마령면의 ‘마령활력센터’는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 공간이다. 2022년 제2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 경험을 가진 이 센터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삶의 질과 교류를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오상근 기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학술발표회 성황리 개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연계 학술의 장 마련

전북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밝힐 열정적인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와 연계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학술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지역별 에너지산업융합단지를 중심으로, 대학이 기업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석사 61명, 박사 9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며, 48명의 취업 연계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번 발표회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우수 논문 발표와 시상식이 이뤄졌다.

발표 주제는 △풍력타워 구조 해석 △현무암 섬유강화 플라스틱 재활용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지 및 모듈 개발 △강화학습 기반 ESS 최적화 △해상풍력 구조 설계 △스마트 전력변환 기술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핵심



분야를 폭넓게 다뤘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우수 학생 5명에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상을 수여했으며, 박람회 현장에는 50편의 연구논문 포스터가 전시돼 사업 홍보와 참여 연구원의 취업 연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제20회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성황리 개최

국내 전력산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를 성대하게 열고, 안전·튼튼한 전력망 구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처음으로 맞을 올린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 안전 최우선으로 빛을 밝히다”라는 웅대한 주제 아래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 제조업체 관계자 등 전력산업계

의 굵직한 인사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문승일 교수의 특별강연은 전력 설비 안전성 향상과 미래 에너지 비전의 청사진을 생생하게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산업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기술 발표는 전력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오상근 기자

‘대학생 재능나눔 + 보이스피싱 예방’

농식품부-KB금융, 진안군을 시작 5개 시·군 농촌지역서 협업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 젊은 열정과 따뜻한 나눔이 찾아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11일 진안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서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활기찬 협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이 필수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현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이·미용,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다양한 재능나눔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B금융그룹은 대학생 봉사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푸드트럭을 제공하며, 즐겁고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만들어준다.

활동 일정에 따르면, 9월 11일 원광보건대 동그라미 봉사단 40명이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서 이·미용, 퍼머, 네일아트와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이어 12일 경운대 사회봉사지원센터 20명은 경북 구미시 옥성면에서 벽화 그리기, 태양광 LED 설치, 푸드트럭 봉사나

서고, 13일 목포대 NTREE 10명은 전남 담양군 대덕면에서 건강검진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다.

16일 순천향대 40명은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서 기초 건강검진과 스포츠 마사지, 19일 여주대 10명은 경기 여주시 북내면에서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푸드트럭 봉사를 펼친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금융 취약계층인 농촌 고령 주민들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대학생 봉사단은 교육과 현장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금융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에 생동감 있는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서비스 공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